데뷔 4년만에 총상금 38억원 ‘트리플나인’의 마지막 꿈

대통령배 4연패 트리플나인, 그랑프리만 남았다

6세 나이부담…사실상 마지막 우승찬스
최병부 마주 “그랑프리 후 휴양보낼 것”

경주마 트리플나인은 지난 4일 대통령배(GⅠ)에 출전해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하며 4연패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4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경이로운 신기록이 세워졌다. 이날 경주마 트리플나인(6세, 수, 한국)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통령배(GⅠ) 4연패에 성공했다. 한국 경마 최초의 대상경주 4연패. 트리플나인은 데뷔 4년 만에 누적상금 약 38억원을 획득해 한국경마 역대 최고 상금 수득마에도 올랐다. 2위 파워블레이드와 약 7억원 차이다. 트리플나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렛츠런파크 부경 연도 대표마에 선정됐고, 현재 국산마 최고인 레이팅 127을 갖고 있다. 엑톤파크는 자마 트리플나인의 활약으로 지난 6년간 부동의 씨수마 1위였던 메니피를 꺾고 2018년 현재 씨수마 순위 1위에 올랐다.

●대통령배 4연패는 경이로운 기록

대통령배(GⅠ)는 국산마 1군 최강자를 선발하는 경주다. 국제대회인 코리아컵 다음으로 높은 8억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모든 국산마들이 꿈꾸는 최고의 레이스다.

4~5세 때 전성기를 맞는 경주마의 특성상, 6세 때 대통령배(GⅠ) 4번째 우승을 한 것은 그야말로 진기록이다. 트리플나인은 대통령배(GⅠ)가 서울과 부경의 경주마들이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오픈 경주로 바뀐 2010년 이후 우승한 경주마 중 최고령이다.

상승세의 3세 신예마 엑톤블레이드, 월드선 등이 이번 대통령배(GⅠ)에서 세대교체에 도전했으나 어림없었다. 트리플나인은 2위와 6마신(약 14.4m)의 큰 차이로 여유롭게 승리했다. 우승을 함께 한 임기원 기수는 “대통령배(GⅠ) 4연패는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트리플나인은 정말 대단한 말이다”라고 전했다.

●그랑프리 제패만이 남았다

경주마로서 모든 영광을 싹쓸이하고 있는 트리플나인에게 남아있는 도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대통령배 4연패를 비롯해 2015년 경남도민일보배, 2016년 오너스컵(GⅢ) 등의 대상경주에서 우승한 트리플나인은 12월9일 국산마와 외산마를 통틀어 최강을 가리는 대상경주 그랑프리(GⅠ) 출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플나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랑프리(G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우승에 실패했다. 계속 한국경마의 새 역사를 쓰고 있지만 이제 나이가 6세여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나 다름없다. 경마 팬들도 트리플나인이 그랑프리(GⅠ)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트리플나인의 최병부 마주는 “트리플나인은 아주 특별한 말이다. 그랑프리(GⅠ)를 마치면 휴양을 보내줄 생각이다. 좋은 목장에서 쉬게 해주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한국마사회, 교육기부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한국마사회가 ‘2018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청소년 말 교육 및 말산업 직업 체험제공, 소외계층 말 관련 콘텐츠 교육기부, 유소년 승마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청소년 및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부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이 총 7만3000여 명에 달한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찾아가는 마음속의 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말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및 공감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화공감센터 인근 학교·단체나 장애인, 복지단체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콘텐츠 교육, 승마체험, 관상마 전시, 말 먹이주기, 끌기 등의 말 관련 체험을 선사한다.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말산업 진로직업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해설사의 강의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장제소, 승마장, 포니하우스 등을 견학하고 수의사, 장제사, 마필관리사, 기수 등의 다양한 말산업 직업군을 소개한다. 살아있는 말을 만져보거나 체험할 수 있어 현장감 높은 교육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재활·힐링 승마는 신체·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 학생의 회복 및 가족의 정서적 치료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부터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찾아가는 승마힐링교실, 우리 가족 다솜누리 등을 통해 재활·힐링 승마 교실을 운영한다.

한국마사회의 지역 문화공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맞춤 교육기부를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공부방,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탈북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역상생 장학금, 청소년 희망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처럼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는 한국마사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59건, 47억6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집행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사회공헌 선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말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콘텐츠 강화, 소외계층 대상 교육기부 확대 등, 국민에게 더 필요하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경마 단신

청수여걸, 퀸즈투어 시리즈 최우수마

서울 경주마 청수여걸이 5세 이하 암말 강자를 가리는 퀸즈투어 시리즈의 최우수마가 됐다. 청수여걸은 퀸즈투어 지정경주인 11일 랫츠런파크 부경 경상남도지사배(GⅢ)에서 4위에 머물렀지만 이전 뚝섬배(GⅡ) 1위, KNN배(GⅢ) 2위를 기록한 우수한 성적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누적했다. 퀸즈투어 최우수마는 인센티브 1억원을 받는다.

16~18일 ‘라이드 포 라이프’ 말 공연

2018 말 문화 공연 ‘라이드 포 라이프’(Ride For Life)가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공연한다. ‘사운드 오브 뮤직’, ‘렌트’ 등의 뮤지컬을 연출한 김재성 감독과 인천아시안게임 종합마술 금메달리스트 전재식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다.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마장 전체를 무대로 탱고, 힙합, 전통국악과 콜라보레이션을 펼친다.

마사회, 김장 1만1000kg 소외이웃 지원

한국마사회는 14일 렛츠런파크 서울 중문 마주 주차장에서 ‘2018 렛츠런 사랑의 김장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김낙순 회장, 김종길 부회장, 김종천 과천시장, 미스코리아 녹원회, 현정화 탁구 감독, 이경근 유도 감독과 자원봉사단 등 180여 명이 참가해 300박스 분량의 김치를 담갔다. 추가로 800박스를 구매해 총 1만1000kg의 김치를 전국 30개 지사 인근 취약계층 가정으로 배달했다. 한국마사회는 13년째 소외계층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있따.

렛츠런파크 서울, 회원실 할인 이벤트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회원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매주 금요일에 5층 회원실을 최대 3000원 할인한 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6000~1만6000원으로 운영하던 6층 회원실은 5000~1만원이다.

마사회, 말산업 인력 양성기관 교류행사

한국마사회는 16일 서울 강남 SETEC 컨퍼런스룸에서 ‘2018년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0개소 교사 및 교수진, 재학생 총 190여 명이 참가한다.

toto 스포츠토토

“우승후보 KB스타즈? 그래도 우리은행” 39%

농구토토 W매치 66회차 중간집계

국내 농구팬들은 16일 열리는 2018~2019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청주 KB스타즈전에서 홈팀 우리은행의 우세를 예상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16일 오후 7시 아산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 열리는 우리은행(홈)-KB스타즈(원정)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W매치 66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39.25%가 우리은행의 승리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0점 이내 박빙을 예상한 참가자는 35.20%로 뒤를 이었고, 원정팀 KB스타즈 승리를 예상한 참가자는 25.54%를 기록했다.

전반전도 우리은행의 리드 예상이 42.26%로 우위를 차지했고, KB스타즈 리드(33.39%) 및 5점 이내 접전(24.36%)이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는 양 팀 모두 60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16.02%로 1순위를 차지했다.

마침내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전승을 올리고 있는 두 팀이 맞붙는다. 이 경기를 통해 누군가는 시즌 첫 패배를 맛보게 된다. 양 팀은 올 시즌 3경기를 치른 현재 평균 득점과 실점마저 거의 비슷하다. 홈팀 우리은행이 70.7점을 올리며 55.0점을 내줬고, KB스타즈 또한 70.7점 득점에 실점은 53.0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우리은행이 3승4패로 약간 뒤졌지만, 평균 득점과 실점은 거의 비슷했다. 이번 경기 또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이번 농구토토 W매치 66회차는 경기 시작 10분전인 16일 오후 6시 5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우리은행 김정은

KB스타즈 박지수

“1세트 현대캐피탈, 2~3세트 대한항공 우위”

배구토토 매치 38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6일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2018~2019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대한항공의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38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들은 원정팀 대한항공의 우세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세트 승리팀과 점수차를 맞히는 배구토토 매치 38회차 게임에서 세트별 예상 승리팀은 1세트에서 현대캐피탈이 차지한 반면, 2·3세트에서는 대한항공의 승리가 예상됐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1세트에서는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53.75%와 46.27%를 기록했고, 반대로 2세트와 3세트에서는 대한항공이 53.55%와 51.02%를 획득해 현대캐피탈보다 근소하게 높은 투표율을 선보였다.

1~3세트까지의 각 세트 별 예상 점수 차이는 모든 세트에서 3~4점이 1순위를 차지했다. 1세트 42.96%, 2세트 43.59%, 3세트 39.54%로 세트 별 점수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가스파리니

현대캐피탈 아가메즈

케이토토 관계자는 “국내 배구 팬들은 리그 상위권 팀들의 대결인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했다”며 “대한항공이 최근 2연승을 기록해 1위에 올라있지만 현대캐피탈 역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전적을 고려한 세밀한 경기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구토토 매치 38회차 게임은 16일 오후 6시 5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케이토토 사회봉사단 ‘토토프렌즈’ 강동구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성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토토프렌즈(Toto friends)’가 13일 서울시 강동구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된 스마트폰 교육 봉사활동은 평소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요 모바일앱의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스마트폰 교육 봉사활동에는 케이토토 IT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의 구조와 기존 조작, 환경설정, 검색, 주요 앱 사용방법 등에 이르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서로 다른 스마트폰 사용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돼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토토프렌즈 봉사단 3명은 한 명의 주 강사와 두 명의 보조강사로 나뉘어 주 강의 도중 진도가 더딘 어르신들에게는 개별 교육을 진행하는 세심함까지 보였다.